

1. 오늘은 창조절 제 4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교회 로고 및 교회 이름의 Calligraphy 공모전
  - 로고 및 캘리 그래피 각각 우수작에 대한 소정의 상금 지급
  - 제출 방법 : 김경헌 목사의 이메일 [ohkc.kim@gmail.com](mailto:ohkc.kim@gmail.com) 로 보내시면서 의미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세요.
  - 제출 기한 : 10월 30일 주일까지
4. 다음 주일 예배는 온가족 예배와 함께 성찬식이 있습니다.
5. 목자모임이 4시 20분에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6. 10월 주일 안내 및 봉사 - 뿌나 목장
7.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5일: 황병순 집사                      27일: 박정희 자매
  - 28일: 천지은 사모                      10월 1일: 배은아 자매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전미영 집사 / 번역: 김명하 형제 / 안내 및 봉사: 뿌나 목장

## \*향후 교회 일정

- 부서장회의 : 10월 9일 주일 예배 후 도서관

# 다하나교회

*One Heart Korean Church*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다하나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예배: 매주 주일 오후 3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https://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_____	인도자
신앙고백	_____	다같이
찬양과 경배	_____	찬양팀과 함께
기도	_____	양하나 집사
주일학교 이동	_____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찬송	_____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_____	다같이
성경봉독	_____ 창 2:15-17 _____	인도자
설교	_____ 예배의 실패, 소명의 실패 _____	김경현 목사
봉헌찬송	— 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같이
봉헌기도	_____	인도자
교회소식	_____	인도자
파송찬양	_____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_____	다같이
축도	_____	김경현 목사

# 목회 칼럼 / 어린이라는 세계

며칠 전 큰 아이와 잠자리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녀석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자 사뭇 놀랐다. “아빠 난 정말 어렸을 때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았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내가 커보니까(지가 얼마나 컸다고^^) 세상이 그때랑은 달라 보여. 난 걱정하는 것도 많아졌고 욕심도 많아졌고 두려워 하는 것도 많아진 것 같아. 세상이 천국 같지는 않아.” 이렇게 인생을 깨달아 가며 철이 드는가 보다 하며 웃어 넘겼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녀석도 이제 어린이의 옷을 벗어가고 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막내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지러지게 웃을 때가 많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과 상상력을 접할 때 나는 놀란다. 가끔 아이들과 개그콘서트를 본다. 한번은 한 개그맨이 어떤 드라마에서 조선의 왕이 한 말을 가지고 페리디를 한 대목이 있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걸 보더니 한 글자만 바꿔서 자기만의 페리디를 즉석해서 만들어 낸다. “지르하고 살빠졌네”. 응? 이건 뭐지? 근데 생각해 보니 너무 웃기다. 야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 있으면 정말 최고겠는걸. 하하하.

어린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세계를 사는 존재들인가 보다. 큰 아이의 말처럼 그들은 아마도 천국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랬나? 예수님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가는 거라고.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봄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읽으며 마음이 참 따뜻해졌다. 어린이 독서지도사인 저자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것들과 에피소드들을 소개한 에세이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와 그들의 순수한 상상력에 감동하며 읽었다. 한편으로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딱딱해져 버렸는지 그들의 말랑함이 나를 자극하는 시간이었다. 교회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떠한 할까? 교회 학교, 이 명칭부터 너무 딱딱하다. 그 말랑한 녀석들에게 딱딱한 교리 교육으로 정형화되고 틀에 짜여진 신앙인을 찍어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이야기는 말랑하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들을 가두지 않는다. 이야기는 상상력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비상하게 한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이 아이들과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떨까?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예배때마다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존재들로 빚어져 가면 참 좋겠다.